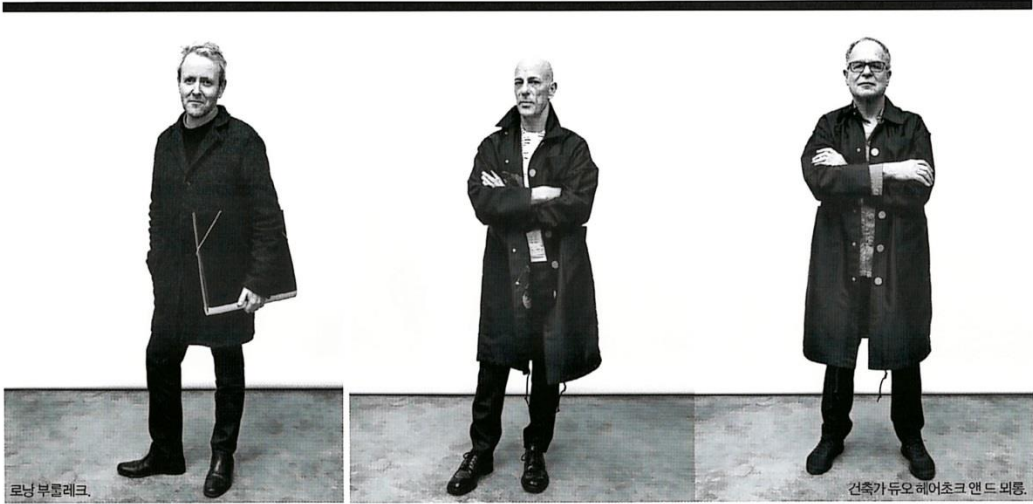


4 Designers, 4 Creations

프라다가 패션 프로젝트 '프라다 인바이트(Prada Invites)'를 위해 세계적 명성의 산업디자이너, 건축가 4팀과 힘을 모았다.
나일론 소재의 아름다움과 실용성, 기술력 등 다각도로 탐구한 완성작을 2018년 F/W 시즌 프라다 남성 컬렉션에서 처음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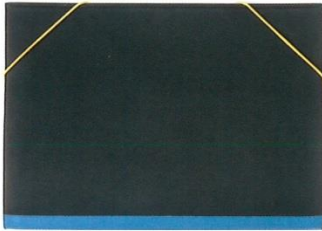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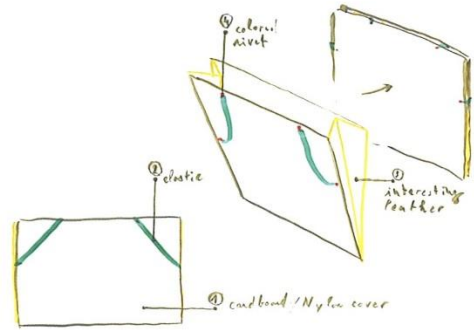
에디터 정순영(jsy@nobless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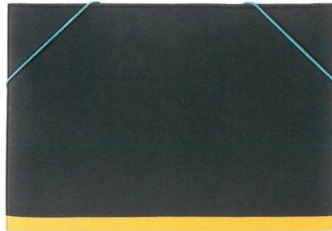
© Willy Vanderperre

RONAN BOURULLEC

"저는 폴더를 끼고 걷는 건축가나 화가, 학생들의 옆모습이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커팅한 직사각형 폴더가 사람들의 움직임과 대비를 이루기 때문이죠."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제품 디자이너 로낭 부룰레크는 이런 생각에서 영감을 가져와 각진 세이프의 가방을 디자인했다. 건축물처럼 기하학적 구조가 돋보이는 이 백은 단색인 덕에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이지만 그 속에 컬러 포인트가 숨어 있다. 백 하단의 블루와 옐로, 퍼플, 오렌지 컬러 가죽 라이닝과 대비를 이루는 컬러풀한 고무 밴드의 매치는 우리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감각적인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가죽 폴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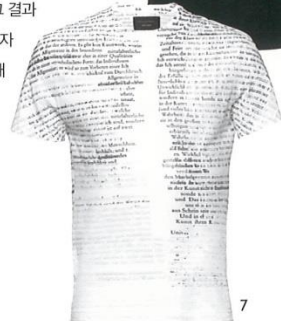


로낭 부룰레크가 그린 디자인 스케치.



HERZOG & DE MEURON

바이에른 뮌헨의 축구 경기장 알리안츠 아레나와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유명한 건축가 듀오 헤어초크 앤드 뫼롱이 이번 협업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1999년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프라다 부티크 아오야마를 디자인한 이들은 프라다와는 오랜 인연을 자랑하는, 누구보다 프라다를 잘 이해하는 디자이너로 손꼽힌다. 헤어초크 앤드 뫼롱은 프라다의 블랙 나일론 패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언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되돌아봤다. 바야흐로 지금의 언어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매료시키는 힘을 상실했다. 과거 언어는 계몽을 위한 무기였고, 의견을 내세우고 중요한 진실을 파헤치는 데 사용됐으며, 권위를 지녔다. 헤어초크 앤드 뫼롱은 이런 세태를 안타까워하며 한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 언어의 위대함을 옷에 표현했다. 과거 언어를 상징하는 디자인이나 장식, 인간의 몸에 새긴 패턴, 언어의 발굴 현장에서 만난 두루마리와 동전 등의 고대 유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디자인을 완성했다. 그 결과 오래된 문서에 적혀 있는 문자를 프린트한 셔츠, 초창기 영어 문자를 음각한 단추 장식의 아우터, 책 속 빛바랜 문자들을 그대로 새긴 그라데이션 화이트 티셔츠 등을 창조해냈다.



1, 2, 3, 4, 5 건축가 듀오 헤어초크 앤드 뫼롱에게 영감을 준 디자인이나 장식, 고대 유물, 6 문자를 음각한 단추 장식의 아우터, 7 문자를 프린트한 티셔츠.

KONSTANTIN GRČI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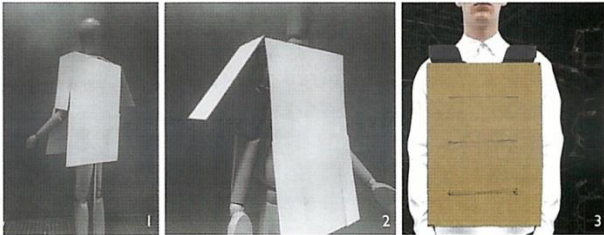
"제 디자인은 낚시할 때 입는 아웃포켓 베스트를 참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머니를 옷처럼 입는 제품으로, 앞치마와 베스트로 활용 가능한 모자 달린 베스트를 떠올려보세요." 독일의 산업디자이너 콘스탄틴 그리치치는 영감의 원천을 이렇게 설명한다. 처음 프라다가 이 프로젝트를 전했을 때 그는 등근 청이 달린 회색 페도라에 낚시 조끼를 입고 행위예술을 펼치는 예술가 요제프 보이스를 떠올렸고, 이 베스트를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이 주제를 좀 더 추상적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앞치마와 모자를 결합한 유틸리티 베스트를 창조하게 되었다고



낚시할 때 입는 아웃포켓 베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나일론 소재 베스트.



앞치마와 베스트로 활용 가능해 현대인의 바쁜 라이프스타일에 유용하다.



REM KOOLHAAS

2009년 경희궁에서 열린 프라다 트랜스포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건축가 렘 콜하스도 프라다 인바이트에 흔쾌히 동참했다. 그는 1984년 처음 세상에 선보인 프라다의 나일론 소재 백백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었다. 야외 활동에 유용한 백백 속에는 스웨터와 레인코트, 바나나, 마실 것, 양말 등 온갖 잡다한 물건을 보관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데, 착용자는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 일쑤. 렘 콜하스는 이렇게 뒤섞여 있는 물건들을 백백에서 꺼낼 때 줄과 매듭, 벨크로 등을 풀어헤치는 난관에 봉착하곤 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런 경험을 떠올렸다. 따라서 가방에 들어 있는 물건을 언제든지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내부의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소유물로 느껴진다는 게 그의 설명. 실용성은 물론 디자인에서도 렘 콜하스의 실험적 디자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등에 찰싹 달라붙는 직사각형 종이를 엮은 것 같은 모습이 인상적이며 모던한 블랙과 화이트 컬러, 3단 지퍼 장식, 렘 콜하스가 디자인한 세련된 영문 로고가 눈길을 끈다.



1, 2, 3 건축가들이 디자인할 때 견본 모형을 만들어보듯, 미니 미네키에 백을 만들어 제품을 완성한 건축가 렘 콜하스.

4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모두 갖춘 렘 콜하스의 백백.



2018 F/W UOMO COLLECTION

2018년 F/W 시즌, 프라다의 남성 컬렉션 쇼는 실제 프라다의 물류 창고로 쓰이는 웨어하우스에서 진행했다. 모델들은 곳곳에 독특한 그래픽 삼벌을 장식한 공간을 가로지르며 총 44개의 남성 룩과 15개의 여성 룩을 선보였다. 실용적인 작업복을 컨셉으로 한 이번 컬렉션에서는 스포티함을 드러내는 대신 셔츠와 넥타이를 우아한 방식으로 매치한 세련된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패드를 삽입한 오버사이즈 아우터들은 산업적이고 안전주의적 컨셉에 맞게 볼륨감 있게 표현한 것이 특징.

한편 프라다는 앞서 소개했듯 독창적 작품 세계로 알려진 산업디자이너와 건축가 4팀에게 나일론 백을 비롯 제품의 디자인을 의뢰하는 '프라다 인바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8년 F/W 시즌 프라다 남성 컬렉션에서 이를 공개했다. 이 룩들은 특별히 노란색 모자와 함께 스타일링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프라다 블랙 나일론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 문의 02-3218-5331



문자를 프린트로 활용한 로남 부를레크의 셔츠.



디자이너, 건축가 4팀과 협업한 룩들을 노란 모자로 강조한 2018년 F/W 시즌 프라다 우오 컬렉션.

